

오디오 문화를 선도하는 고품격 오디오 음악 전문지

월간 오디오와 레코드

Audio & Record

우편번호 120-180 서울시 서대문구 창천동 503-24 휴암빌딩 202호 / 도서출판 한울 / 통권 91호 / 1998년 3월 1일 발행 / 매월 1일 발매

SINCE 1983

3

Audio & Record

1998◆3

특집

국내 오디오 제품 17기종의 시청

오디오와 레코드

특집 IMF 시대의 국내 오디오 메이커

클로즈업 PATHOS Twin Towers

EINSTEIN ODEON 25

PHILIPS CDR 870

빈티지 포럼 히스킷 W-5M

레코드파일 초대석 한스 크나퍼스부쉬

DG 100주년을 빛낸 아티스트 (2)연주자 편

20세기의 로맨티스트 니콜라우스 아르농쿠르

즐거운 오페라 세상

김진묵의 재즈 명반 순례

클로즈업

PATHOS TwinTowers

하이브리드 앰프의 새로운 지평 돌보이는 균형감과 집중력

성면창 / 오디오 평론가

<가격 : 670 만원>

· 실효 출력 : 30W+30W(8Ω) · 입력 단자 : PHONO, CD, AUX, TAPE · 입력 임피던스 : 100kΩ · S/N 비 : 90 dB · 사용 진공관 : 12AX7(ECC83) × 2 · 크기 : W490 × H250 × D470mm · 무게 : 45 kg · 수입원 : 리마케팅 ☎929-6053



진공관의 유함과 TR의 힘을 접목 이탈리아적 미적 감각도 넘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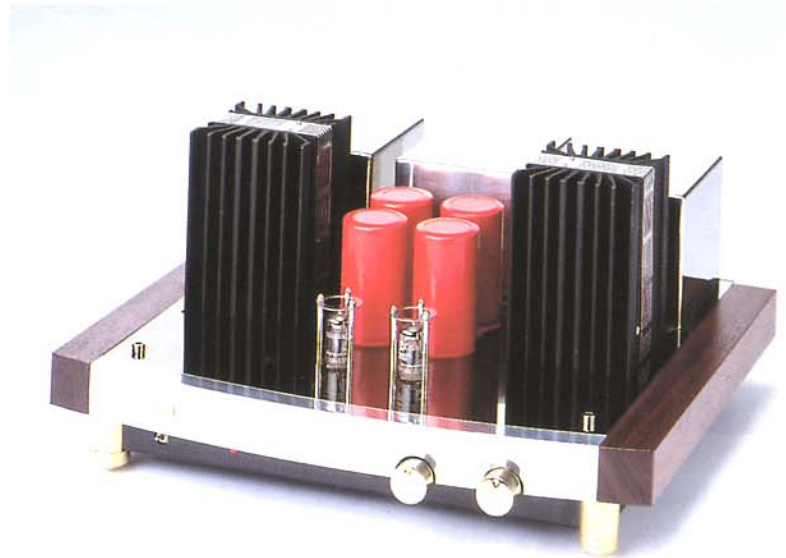
모두가 알고 있는 사실이지만 오디오 만큼 묘한 것도 없다. 기술의 발전에 따라 오디오가 발전할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는 것을 수많은 예로부터 알 수가 있으며, 많은 기술적인 새로운 시도가 당시에는 굉장히 혁신적인 것으로 보이지만 시간이 흐른 후엔 다시 제자리로 돌아와 있다는 것을 느낄 때도 많다. 따라서 오디오 제조라는 것처럼 어려운 것도 없어서 기술적인 것만으로 승부할 수 없고 외관과 음질 등 모든 기본기가 갖추어진 다음 마지막 단계로서 사람의 이목을 끌 무엇인가가 있어야만 한다. 그래서 일본과 같이 기술이 발전된 나라보다도 역사와 전통이 있는 유럽 쪽의 기기가 사람들의 눈길을 끄는 지도 모르겠다. 하여튼 오디오에는 객관적으로 설명하기 힘든 부분이 있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다.

이러한 시각에서 보면 몇 년 전부터 시작된 이탈리아 제품의 등장은 예후가의 이목을 충분히 끌 수 있는 잠재력을 지니고 있다. 이탈리아는 전통적으로 예술적인 나라이면서 더구나 뛰어난 목공예를 오디오에 접목시키고 있다는 점에서 그 전까지 브리티시나 아메리칸 사운드니 하는 것에 익숙한 우리들에게는 새로운 호기심을 불러일으키기 충분하다. 특히 음질이나 구조적인 면보다도 우선 외관이 눈에 띄어야 하는 요즘 같은 감각적인 시대에는 빼어난 디자인을 가진 그리고 나름대로의 기술적인 특색을 겸비한 이탈리아 제품이야말로 정말 매력적인 대상이라 아니할 수 없다.

캐토스사의 트윈 터워스는 이러한 이탈리아적인 미적 감각이 넘쳐나는 제품 이어서 쌍둥이 벌딩과 같은 출력단의 방열판이 인상적인 제품이다. 이 제품

에 대해서는 여러 번 리뷰가 되었지만 외관 하나만 보더라도 충분히 어필할 수 있는 제품이다. 그런데 출시 때부터 많은 관심을 끌어 왔던 중요한 요소는 이 앰프에 채용된 '인폴(INPOL)'이라는 회로로서 한마디로 하이브리드형 앰프의 새로운 경지라 할 만하다. 보통 진공관의 유연함과 트랜지스터의 파워를 접목하려는 시도는 있어 왔지만 이들의 장점만을 취하여 제련해 낸다는 것은 그리 쉬운 일이 아니어서 잘못하면 서로간의 단점만 드러나기 쉽다. 이

의 하이엔드 제품의 추세를 보면 출력과 구동력을 우선으로 하는 제품과 순수함을 우선으로 하는 싱글 방식 선택의 앰프들로 나눌 수 있는데 캐토스의 제품이 대표적인 예이다. 보통 앰프의 발전은 디스토션을 최소화한다는 목적으로 진행되어 왔으나 이것을 역행하여 디스토션을 좀 가지더라도 싱글을 고집하는 방식도 있는데, 이는 부귀환이 음의 자연스러움과 선명도를 나쁘게 한다는 사실 때문이다. 다시 말하자면 디스토션이 조금 있더라도 음이 자연스럽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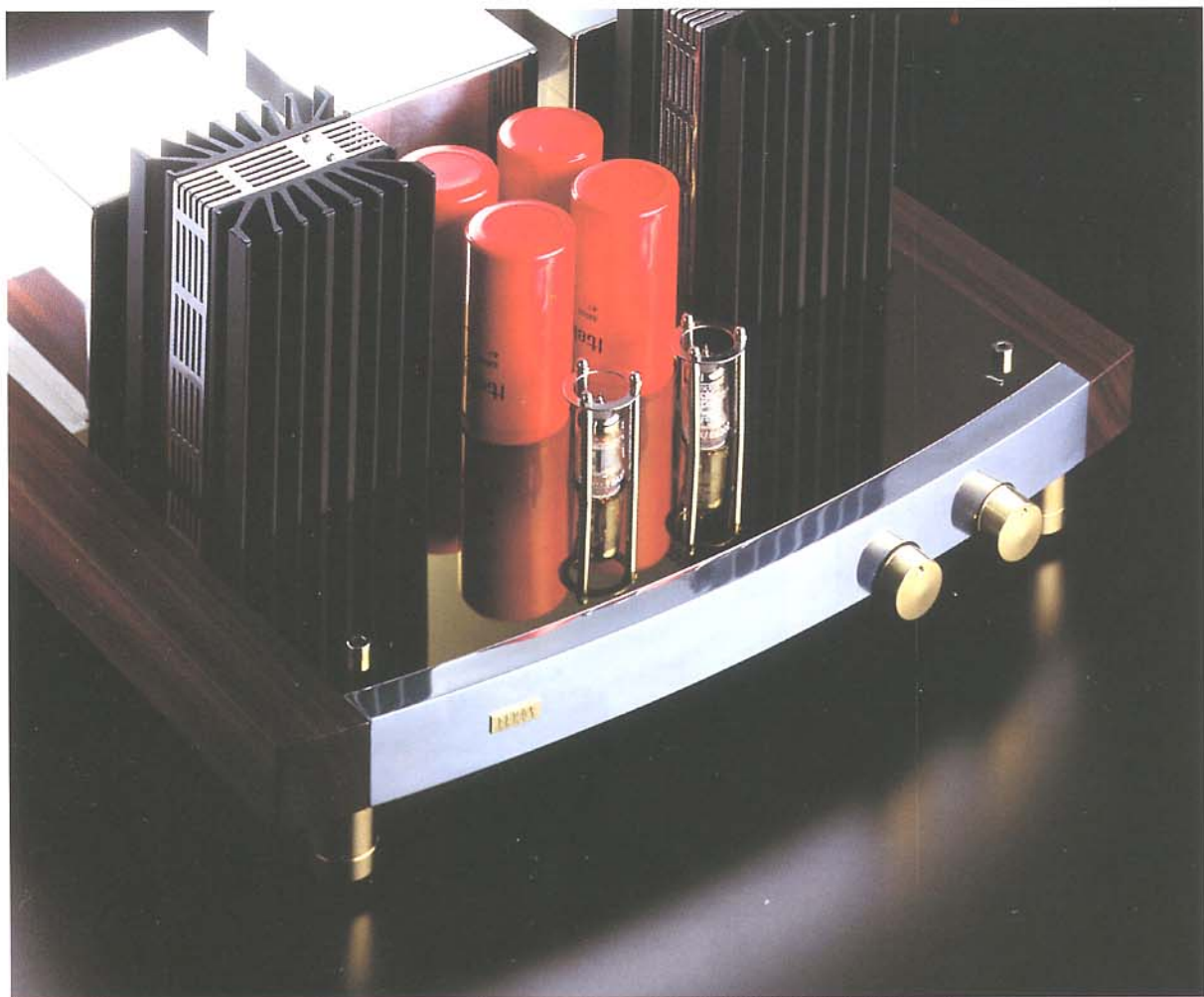
채널당 30W의 출력을 내는 A급 앰프인 트윈 터워스. 신호의 일그러짐을 최소화하기 위해 출력단에 싱글 엔디드 방식으로 3개의 반도체 소자를 병렬로 사용했다.

앰프는 우선 피드백을 없앤 싱글 엔디드 방식을 기본으로 3개의 MOSFET 소자를 병렬 연결해 채널당 30W라는 낮은 출력을 얻고 있다.

이는 전압상의 이득보다도 스피커 구동에 필요한 전류이득을 우선으로 한 것이며 부귀환을 포기함으로써 소자가 유도하는 일그러짐과 잡음특성 면에서는 다소 손해(?)를 감수하고 있다. 현재

나는 것이 훨씬 음악적일 수가 있다는 것이다. 이것은 자연이라는 것이 완전히 대칭일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는 사실과도 일맥 상통한다.

현대과학의 한 분야인 카오스 이론에 의하면 자연은 비대칭성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 따라서 이러한 비대칭성이 오히려 음을 더 자연스럽게 한다고 볼 수도 있는 것이다. 개인적으로는 이러한



비대칭성이 지인의 무한한 개발성과 발전성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다. 그리고 이 인폴 회로의 가장 큰 특징 중의 하나는 출력단에 대형 인덕터 코일을 사용한다는 점인데 마치 매킨토시 앰프를 연상케 하는 것이다. 이러한 코일에 의해 출력 임피던스를 줄이고 동시에 효율을 높이고 있다. 그리고 무거운 앰프의 경우 어떻게 하면 디스토션을 최소화할지가 문제인데 이를 위해 입력단에는 진공관을 사용하고 있다.

진공관을 사용함으로써 진공관이 가진 부드러운 음색을 살려 보겠다는 목적도 있었지만 진공관의 경우 고전압에서 작동하기 때문에 음성신호에 대한

여유 있는 전압폭을 가짐으로써 디스토션도 최소화할 수 있다는 장점이 진공관 채택의 주요원인이다.

이것은 결국 소자의 직선성의 문제로 생각할 수가 있으며 보통 진공관이 TR보다 10배 정도 높은 전압에서 구동하므로 그만큼 여유가 있는 편이다. 내부 부품들은 모두 최상급의 제품이지만 무엇보다도 어태뉴에이터식 볼륨이 가장 만족스러운 부분이다. 더구나 어떠한 위치에서도 두 개의 저항만을 통과하도록 설계되어 있어서 프리부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볼륨에 의한 음손실을 최소화한다. 또한 순A급 상급 방식이기 때문에 전원부에 대한 투자는 아주 중요

한 요소로 프리부에는 토로이달 트랜스를 그리고 파워부에는 대형 EI 형을 분리 사용하고 있다. 이 앰프는 오랫동안 좋은 평가를 받아왔는데 이처럼 외관과 회로구성의 매력 때문이라는 것을 실감하는 계기가 되었다.

넓게 방사되는 풍성한 울림 유려하고 대범한 인상이 지배적

시청은 4 종류의 스피커를 차례로 연결해 들으면서, 매칭되는 스피커마다 소리가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집중적으로 살폈다. 여기에 소스 기기는 마이크로 메가의 스테이지 3였다. 우선 어쿠스틱 에너지의 AE 120과 매칭했을 때

느낀 첫인상은 스피커가 한층 커진 것 같은 느낌과 함께 음들이 충분한 힘을 가지고 빠져나간다는 점이다. 전혀 주저하거나 위축된 느낌이 없이 당당하고 소신 있는 모습이 가장 뚜렷한 차이점이다. 그러나 음장이 앞쪽으로 전진해 있는 느낌은 아니면서 선명함과 해상력이 일품이다. 텔레만의 이중협주곡에서 류트의 음관 울림까지 그대로 들릴 만큼 음의 해상도가 좋은데 이것은 고음을 증가시켜서 내는 효과가 분명 아니다. 고음이 약간 강조된 듯하지만 분명 다른 기기에 비하면 고음이 강한 것이 아닌 적당한 수준이다. 그러므로 이러한 효과는 밸런스가 잘 조절된 가운데 음의 군더더기가 제거되었기 때문에 생기는 것이다.

음 자체의 에지가 선명하고 분리도도 매우 높지만 고음으로 인한 섬세한 해상력은 분명 아니고 세세한 데는 별로 신경쓰지 않는 대범한 필치를 보여준다.

보통 놀라울 만큼 섬세한 해상력을 자랑하는 앰프들을 보면 음의 속까지 들여다보이는 음을 보여주는데 이 앰프는 그러한 종류는 아니고 전체적으로 잘 조절된 가운데서 나오는 순수하며 스케일이 큰 소리로 음악의 세세한 부분보다는 전체적인 구성력 면에서 뛰어나다. 음에 활기가 느껴지면서 음이 지나치게 무디거나 신경질적이지 않고 음악을 이끌어가는 힘이 뛰어나다는 것을 느끼게 하는데 저역의 제동력도 좋은 편이다. 세세한데 집착하지 않는 점은 디스카우의 '겨울나그네'를 들어도 마찬가지이며 관현악을 들어봐도 특별히 해상력이 뛰어난 것 같지 않으면서도 깨끗한 느낌이 든다. 이것은 각 음이 충분한 힘이 실린 채로 여유 있게 울려나오기 때문이다. 한꺼번에 음악을 포괄하는 힘이 뛰어나며 저역도 충분히 느낄 수 있는 소리이다.

이 점은 장영주의 바이올린 연주에서도 느낄 수 있는 바 음이 매끄럽게 빠져나온다는 점이 특징으로 바이올린은 보통이며 포르티시모에서 전 음장을 펼쳐내는 힘이 뛰어나다. 타이밍이 정확히 맞고 있다는 느낌이며, 섬세하기보다는 유려하다고 말해야 할 것이며, 세심하기보다는 대범한 인상이 두드러진다. '무반주 첼로 모음곡'에서는 음이 필요 이상 번지지 않고 절제된 가운데 고역의 빛깔을 제대로 표출하고 있다. 첼로의 고역이 아름답다는 것을 실감케 하면서 표현력이 대단하다. 좌우로의 음장은 넓지 않고 앞뒤로 깊은 편이다. 성악에서는 음성이 선명하게 부각되는 편인데 역눌린 느낌이 없이 시원한데도 이상하게 개방감은 별로 없는 편이다.

스피커를 바꿔서 요즘 한창 인기 있는 보체 디비나의 소프라노 스피커와 연결하면 역시 소형인 만큼 저역이 한결 줄어든 인상이고 전체적인 빛깔이 매우 밝아졌다. 하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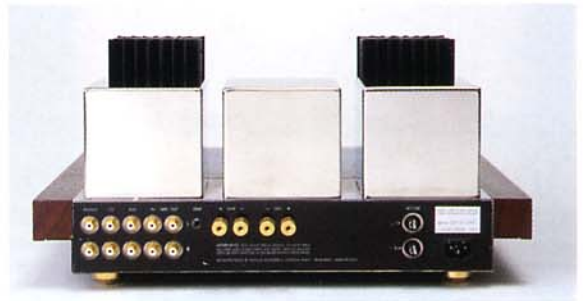
만 고역이 상당히 강조되는 편인데 아마 앰프의 직선성과 스피커의 꼬장꼬장한 맛이 상승 효과를 불러오기 때문인 것으로 여겨진다. 특히 질감 면에서는 아쉬움이 많이 남는데 둘 다 너무 깨끗하기 때문일 수도 있다.

안티폰 블루스에서는 의외로 음장이 넓은 스피커의 특성이 잘 나오는 듯 공간감이 잘 살아난다. 특히 고역의 디테일 묘사력이 매우 좋다. 관현악이나 협주곡을 들어보아도 주장이 강하다고 느껴지는 소리이다. 에지가 분명한 음이 좋을 때도 있으나 너무 맑은 물에는 고기가 못 사는 법으로 어쩐지 매칭 면에서는 이전에 들은 어쿠스틱 에너지의

스피커만 못한 것 같다. 너무나 선명하고 날카로워서 손이 베일 것 같다.

AE의 스피커와 원만한 매칭 전체적인 구성면에서 뛰어난

여기서 스피커를 크리스 CS601로 옮겨본다. 마치 소프라노와 어쿠스틱 에너지 스피커의 중간쯤의 소리를 들려주는데 칼라스의 음성이 비교적 무난하고, 특히 고음이 깨끗하고 무난하게 뻗어 나간다. 필요한 고역의 빛이 적당히 들어있는데다가 시원하게 뻗어 가는 느낌이 좋다. 관현악은 음장이 약간 작음으로 인해 뒤에 처지는 인상이지만 음성의 집중감 만큼은 어느 스피커보다 뛰어나다. 특히 음성이 정확하고 심이 있는 가운데 질감 있고 두터운 기가 느



껴지는 점이 가장 눈에 띄는 점이다. 밸런스 면에서나 균형 면에서나 매우 좋은 균형으로 느껴지는데 약간 맛있게 느낄 수도 있지만 유연하고 부담 없고 질감이 좋다는 면에서 보면 트윈 타워의 성질이 가장 잘 드러낸다고 할 수 있다. 특히 관현악의 펼침이 비교적 넓게 느껴지는데, 균형이 잘 잡혀 있는 소리이며 부유감과 볼륨감이 뛰어나다. 이런 측면에서 본다면 앰프의 구동력과 스피커가 잘 조화된다고 할 수 있다. 너무 예민하지도 무디지도 않은 소리이면서 중심이 정확하고 넓게 방사되는 풍성한 소리가 정말 충분한 만족감을 준다. A&R